

韓國塔像의 研究

— 半跏思惟菩薩像과 佛國寺多寶塔 —

黃 壽 永

一 머릿말

한국 고대미술 연구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불교의 禮拜對象으로서 寺院의 中心을 차지하는 것은 佛像과 佛舍利—金堂과 塔婆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佛敎美術研究에서 그 中心課題가 塔像에 있는 사실이 곧 이해될 것이다.

불교는 四세기 後半에 이르러서야 中國을 거쳐서 전래하였다. 때는 三國이 鼎立하고 있었고 중국 또한 南北朝로 대립하고 있어서 이들 사이에 交流가 활발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내에서의 三國 상호의 교류 또한 빈번하였다고 추정된다. 이같은 三國 交流에 비로소 着眼하여서 그 관계를 고찰하게 된 것을 아마도 해방후 우리 손에 의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一九四六年 경주 古墳에서 고구려의 在銘壺杆가出土된 사실과 一九六三年 경남 宜寧郡의 僻村에서 延嘉七年銘 高句麗 金銅如來立像(國寶一一九號)이 발견된 사실은 모두 기왕에 소홀하였던 三國 交流에 대한 새로운 注目的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불교미술 연구에 있어서도 例컨대 高句麗에서 불교가 古新羅를 향하여 南下하는 經路를 추적하려는 노력에서 경북 榮州나 奉化 安東善山 같은 신라의 北方要地가 주목되었고 그중 奉化郡 物野面 北枝里에서는 東洋最大의 半跏思

惟石像(下半身)(현재 慶北大博物館)이 발견되므로써 忘却되었던 地域에서 중요한 사실이 着眼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비단 石像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金銅像에 있어서도 신라 佛敎初傳의 땅이라 일컫는 慶北 善山의 洛東江流域에서 一九七六년 三國最大의 金銅菩薩 등 計三軀(註①)가 발견되므로써 모두 새로운 國寶像으로서 국민을 놀라게 하였으며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京畿道 楊平郡江上面 신화리의 漢江流域에서 멀지않은 山麓의 古代寺址에서 年代가 高古한 金銅如來立像(國寶一八六號)이 갑자기 出現하므로써 또한 우리의 새로운 注目を 받은바 있었다. 필자는 그후 이상 善山과 楊平 두 곳을 찾아서 한국불교의 傳來經路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한바 있었다. 이같이 高古한 三國期の 우수한 金銅像은 도리어 그 서울인 경주부근에서는 일찌기 檢出된바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왕에 서울 佛敎(註②)이나 三陽洞(註③)에서 出土된 金銅佛菩薩像과 더불어 우리의 이 部門研究의 큰 收穫이 되었다.

한편 百濟領域에 있어서는 一九六〇年代後半에 들면서 새로 주목된 瑞山·泰安(註④) 등 그 西北地域에서의 巨大한 磨崖石像의 檢出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은 新羅領域에서의 조사에 비하여 新出資料에 接하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百濟遺物의 零細性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地域에 대한 發掘等 學的 注目이 따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 全北益山地區(註⑤)에서 전래하는 百濟下代의 石像과 그 歷史的背景이 새로 주목된 것은 하나의 成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古新羅와 百濟가 일찌기 차지하였던 그 領域에 대한 우리의 주목은 무엇보다 먼저 禮拜尊像의 檢出에서 인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또 한편 最近年에 이르러 漸次 強化된 埋藏物法規에 따르는 效果라고 하겠으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 部門에서의 着眼이며 視野의 擴大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고대의 불교미술 연구에서 기왕의 산발적인 資料檢出에서 나아가 佛敎初傳의 三國에 있어서의 交流相과 그 系譜를 注目케 하였다. 그것은 또 한편 기왕에 국내에서 알려진 金石遺像中的 대표적 작품에 대한 우리의 새로



第1圖 國立中央博物館金銅半跏思惟像(舊德壽宮美術館)

은 考察을 가능케 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으니 古 代美術研究에서 新資料의 確保만이 未決된 問題의 해결과 새로운 眼界를 可能케 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事實은 비단 佛像에서 뿐 아니라 고 대 塔과에 대하여서도 동일하다. 더욱이 한국석탑의 발생국으로 지목되는 백제고토에 있어서 「東方石塔之最」라 일컫던 全北 益山 彌勒寺石塔에 대한 우리의 오랜 注目은 마침내 그 石塔의 東方에서 일찌기 豫見한바 있었던 또 하나의 石塔址(註⑥)를 발굴하므로써 한국석탑의 始源樣式를 히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하였던 그 基壇部를 노출시켰을 뿐 아니라 나 아가 그와같은 同一規模의 石塔이 東西로 배치된 事實이 확증되므로써 韓國伽藍配置의 새로운 論議가 비로소 그 物證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이같은 三國末期의 一般型 方形多層石塔의 연구에 이어져 이 益山 彌勒 寺塔과 隣在하는 同郡 王宮里五層石塔에 대한 새로운 年代推定이 마련 된 事實을 들어야 하겠다. 이 塔은 과거 彌勒寺塔과의 비교고찰에서 그

더불어 다시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一般型方形多層石塔에 대하여 신라 八世紀에 들어서 비 로소 建立된 特殊形式의 신라탑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多寶塔(註⑦)은 그 代表가 될만하다. 이 多寶塔에 대하여서는 기왕에 큰 논의는 없었으며 또 日政初에 解體修理되었으나 그 工事의 報告書는 말할것도 없고 사진 一枚를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 石塔의 內部構造는 아니라 그에 따라 서 발견되었다고 口傳되는 舍利具의 장엄을 알 수가 없으니 日政初 총 독부에 의한 이른바 古蹟補修의 性格을 잘 보이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且置하더라도 이 多寶塔이 新羅石塔의 樣式系譜에서 어 떻게 說明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章을 바꾸어 위에서 들은 塔像에 대하여 더욱 설명하려는 까닭이다.

年代의 近接함이 여러 內外學者에 의하여는 의되어 왔다. 그러나 一九六五年의 解體修理를 통하여 그 年代가 종전의 견해와 같이 新羅 統一初期 심지어는 百濟下代로 올라가는 作品이 아니라 도리어 훨씬 降下하여서 高麗初期 十世紀頃의 작품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 益山王宮里五層石塔은 後代에 이 르러 百濟彌勒寺塔을 模範삼아서 이루어진 이 른바 百濟樣式을 지니고 百濟故土인 忠淸·全 羅地域에서 한때 유행한 高麗 石塔의 하나로 추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바로 그 建立地點이 百濟의 遺蹟이며 同代의 遺物을 出土하는 事實과 混同되었던 이 石塔에 대한 論議가 是正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은 同塔에서 發見된 金板經 등 稀貴한 舍利具와



第2圖 月城神仙寺 磨崖半跏思惟菩薩像

二 彌勒半跏思惟菩薩像

위에서 이미言及하였거니와 한국佛像의 연구는 또한 佛菩薩이 그 中心課題가 된다. 그것은 나아가 당대 신앙의 배경을 전제하고 中·印에서의 造像과 그 流行을 감안하여야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보살상으로서 먼저 三國의 半跏思惟像이 거론되어야 함에는 아무도異論이 없을 것이다. 國內에는 높이 約三尺의 金銅像兩軀가 박물관에서 전래하고있는 사실에서 한층 이같은 樣式像이 주목되기도 하였거니와 해방후의 조사를 통하여 高句麗의 平壤 平川里出土의 金銅像, 百濟의 瑞山磨崖像, 古新羅의 斷石山 神仙寺 磨崖像과 奉化石像, 榮州出土라고 전하는 銅像(尹章燮氏 소장) 등 그資料의 增加(註⑧)를 보았다. 이같은 새로운 着眼은 앞으로 그들의 綜觀을 위하여 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 이들 新資料 이외에 既存像에 대한 研究에서 이렇다할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第3圖 奉化北枝里半跏石像(慶北大博物館)

既存하는 國寶像(國博所藏)兩軀의 傳來經緯에 대하여 새로운 資料나 論議는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三國中 이들이 어느 王朝에 귀속되는나 하는 問題 또한 未決인채, 여전히 이들을 다만 「三國時代」로서 통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國寶兩軀에 대하여 紀實의 日人學者(關野 貞博士)에 의한 古新羅說은 아직껏 變動될 뚜렷한 理由가 없다고 하겠다. 도리어 舊德壽宮美術館半跏像에 대하여서는 오랫동안 慶州博物館長에 在職하던 大坂金太郎氏의 새로운 證言에 의하면 이像은 경주 南山 西麓——拜里三體石佛寺址를 가르킨듯 하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證言은 필자가 一九六八年 三月에 그의 隱居處인 日本 松江市를 찾아서 直接 물은바 있었고 그후 귀국하여서는 그 자주 이寺址 부근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關野 貞博士는 그의 「朝鮮美術史」에서 「慶州의 南, 五陵부근의 廢寺址로부터 出土」라고

또한 傳聞만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 두가지 資料는 그 佛像의 傳來場所로서는 同一地域을 指稱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동시에 一九六〇년대後半에 이루어진 上記한 奉化石像의 발견, 그리고 경북 月城郡 西面 斷石山 神佛寺石窟안의 磨崖半跏像의 實測調査는 이 舊德壽宮像의 經추진래 설을 다시금 주목케 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三國中 最古의 磨崖석상으로 추정되는 神仙寺像과 舊德壽宮像과의 比較考察은 그들이 서로金石의 차별이 있기는 하나 뚜렷한 樣式上的 親緣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서 한때 후시 百濟作品으로서의 與否도 論議되어야 한다고 말한 필자로서는 그보다도 차라리 기왕의 新羅說을 따라 앞으로의 연구를 進行시켜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이같이 舊德壽宮像을 新羅作으로 고찰하려는 곳에는 新羅에서의 半跏思惟像 新例의 增加를 따라서 그의 信仰의 背景이 또한 他二國에 비하여 더욱 큰 比重을 지녔다고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같은 彌勒信仰을 三國이 受容하였으므로 유독 신라는 그 믿음이 곧 國家課業과 國敎化와 結合되어서 그 깊이와 보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三國統一을 至上目標로 삼았던 신라의 歷史와 그를 완수하였던 신라국민의 信仰의 內實에서 彌勒像의 如來 및 菩薩像(半跏思惟形式)으로서의 두가지의 造形이 三國에서 統一後에 이르기까지 盛行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傳安東出世의 또하나의 國立博物館 國寶像이 또한 아직도 더욱 자세한 出世經緯는 밝힐 수 없었다 하더라도 보다 古式임과 그 傳稱地域(安東)의 新羅佛敎에서의 先進의 性格에서 미루어 그대로 古新羅의 作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하나의 國寶像인 舊德壽宮像이 확실하지 못한 外人의 記錄에서 떠나서 古新羅에서의 이같은 半跏思惟像의 새로운 檢出과 그 樣式系譜를 더듬어 먼저 新羅國을 歸屬國으로 추정하고서 앞으로의 論議를 진행시키기가 가장 온당할 것이다. 六〇〇年頃으로 추정되는 신라 最古의 神仙寺半跏像의 存在는 그보다 약 半世紀가 넘어서 같은 땅에 金銅의 同系樣式像을 낳을 수가 있을 것이다. 平壤 平川里出土高句麗像 또는 瑞山の 百濟磨崖像 등 三國遺像

의 新例가 조사되었고 또 앞으로 金銅像의 新例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現在까지 알려진 新舊의 資料에서 보아 古新羅의 比重은 三國中 가장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서 필자는 기왕에 舊德壽宮像을 후시 百濟作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 可能性의 하나로서 日本京都廣隆寺木像의 百濟傳來說(註⑨)을 들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이 日本廣隆寺木像은 百濟보다 더욱 有力하게 新羅傳來說이 論議되고 있으며 文獻 또한 新羅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最近에 이르러 日本九州大의 田村圓澄(註⑩) 교수는 日本의 聖德太子信仰과 관련시켜서 이 廣隆寺像의 新見解를 發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木像이야말로 「日本書紀」에 의하면 聖德太子의 죽음을 哀悼하여 新羅 眞平王으로부터 贈呈된 것이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見解의 論議는 且置하더라도 이 京都太秦의 廣隆寺가 秦河勝이란 新羅系 渡來人이 建立한 寺利로서 聖德太子와도 因緣이 깊던 곳임을 감안할 때 그곳의 이른바 「寶冠 彌勒像」을 百濟系의 作品으로 전하는 文徵(註⑪)은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일찌기 필자가 소개한 日人 稻田春水氏의 發說로서 舊德壽宮半跏像의 「忠清道僻村出來說」 또한 오늘에 이르러 再檢되어야 할 것이다.

三 多寶塔의 樣式

이미 이 글의 初頭에서 言及하였거니와 新羅塔의 特殊樣式을 代表하고 있는 것은 多寶塔이다. 이 石塔은 오늘 佛國寺에서 西方의 釋迦塔과 對立하고 있어서 한층 그 樣式의 特異함이 주목된다. 이 多寶塔에 대하여서는 일찌기 又玄 高裕燮先生이 그 遺著 「朝鮮塔婆의 研究」(乙西文化社版, 九六頁)에서 설명한 바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이 樣式이 나은 動機는 저 摩訶僧祇律에 나타난 造塔婆說에 歸因시 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하고 다시 나아가 이 摩訶僧祇律에서 引用하여

作塔法。下基四方。周匝欄楯。圓起二重。方牙四出。上盤蓋 施長表相輪。

을 들어 『이는 곧 佛國寺 多寶塔을 해명키 위한 特製의 句인듯도 하여 그 形式을 說明함에 실로 餘蘊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多寶塔의 各部樣式이 上引한 經文과 一致됨을 細部에서 지적하였고 나아가 『그樣式的・源流도 中國에 있었을법하되 지금 中國의 遺構에선 그例를 찾을 수 없고 오직 雞林과 扶桑兩地에만 남은듯하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같은 經文에 보이는 造塔婆說과는 달리 이 多寶塔의 樣式 그 자체에서의 考察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왔다. 이 多寶塔을 『永世의 獨創』이라 표현하므로서 前無後無의 唯一作임을 강조하는 나머지 이 多寶塔 그 자체가 우리나라 石塔系譜에서 벗어나서 마치 外人의 作品인듯 佛國寺 釋迦塔에 얽힌 唐匠의 說話를 이 塔에 附會하여 말하려는 日人의 論議가 있다. 그러므로 이 多寶塔에 대하여서는 上記와 같은 經文에 따르는 說明과는 달리 이 多寶塔 그 자체의 樣式이 곧 新羅石塔과 系譜를 같이 하면서 그 變遷과정에서 造成된 사실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같은 관점에서 이 多寶塔의 上下構造를 解明코져 하여왔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견해를 이미 發表(註⑩)한 바도 있었다. 그것은 要約한다면 이 多寶塔은 그 基本構造에 있어서 一般方形塔과 共通된 點을 지니고 있으니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二層基壇形式을 지니고 있는 사실이다. 먼저 基壇四方에 步階가 있어 그곳을 下層基壇이라 한다면 그위에 方形四隅柱와 中央의 檨柱로서 구성된 것은 곧 그 上層基壇이라 할 것이다. 이같은 二層基壇의 樣式은 新羅統一後에 建立된 月城 感恩寺東西三層石塔에서 비롯하여서 그후 新羅下代에서 高麗塔에 이르기까지 繼承되고 있다. 이와 같은 多寶塔의 二層基壇의 上面에는 欄杆이 둘러졌는데 그안에 安置된 것은 方形一般形 多層石塔이 아니고 그와는 다른 八角特殊形單層石塔의 이른바 八角舍利塔(浮屠)이라는 점이 이 多寶塔이 보인 큰 差別相이며 동시에 特色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上下細部에는 많은 彫飾이 있고 木造建築의 樣式(料栱이나 欄楯) 등이 裝飾되

어 있기는 하나 그 基本形式은 新羅石塔의 一般型과 舍利塔系의 八角型의 二樣式으로써 上下를 構成한 作品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說明은 곧 求禮 華嚴寺獅子塔에도 그대로 해당되는바 다만 이塔에서는 多寶塔과는 달리 一般型三層塔이 그 上部에 安置된 點이다. 그러나 新羅에서 발달된 八角形石造浮屠는 新羅 廉居和尚塔(八四四年, 오 늘 景福宮에 移建)으로서 最古作이라 하나 그에 앞서서 八世紀中葉의 作品을 우리는 多寶塔에서 볼 수가 있다. 동시에 이같은 多寶塔의 考察을 위하여서는 그에 先行하는 金屬製品으로 感恩寺 金銅舍利塔(六八二年으로 推定)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품은 方形基壇이 있고 그 上緣을 돌아서 欄杆이 둘러있는 그 中央에 圓形의 舍利塔이 安置되어 있다. 이같은 方壇上의 圓塔安置(註⑪)의 意思是 곧 佛國寺 多寶塔에 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多寶塔에는 一般型 方形塔과 같은 層數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多寶塔은 一般型 方形塔의 變遷過程에서 八角浮屠의 流行에 앞서서 創案된 신라의 一特殊樣式의 作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摩訶僧祇律의 造塔法은 바로 신라 多寶塔의 樣式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곳에 보이는 記文은 동시에 印度古塔에도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 한국의 고대탑상연구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주로 三國시대에서 新羅統初까지 유행한 半跏思惟像을 들어서 그 대표작품의 하나로서 구덕수공상을 들었다. 그리하여 新羅에서의 믿음과 그 시대적 배경에서 이같은 樣式像은 三國중 他二國을 압도하여 新羅에서 크게 유행되었으며 마침내는 우리 上代의 彫刻을 대표하는 兩軀의 國寶 金銅像을 오늘에 傳來하였는바 그들의 歸屬國으로서는 三國中 古新羅國이 계속 주목되어야 할 것을 말하였다(註⑫).

塔婆에 있어서는 신라의 特殊型중에서 佛國寺 多寶塔을 들어서 설명하였으며 八角型舍利塔을 二層方形基壇위에 安置한 造形樣式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一九七五年度 產學協同財團學術研究費支援助으로 이루어졌다)

〈註〉

① 姜仁求·善山出土金銅如來菩薩立像發見始末(考古美術 一二九·一三〇號) 崔淳雨先生華甲論文集 一九七六年)

② 金元龍·蘓島出土金銅佛坐像(歷史教育 第五輯 一九六一年)

③ 黃壽永·서출出土金銅觀音菩薩立像(美術資料 一二號 一九六八年)「韓國佛像의 研究」一九七三年刊 所收)

④ 黃壽永·韓國佛像의 研究(三和出版社 一九七三年刊行)

⑤ 黃壽永·益山の 佛教 遺蹟(朴吉眞總長回甲論文集 圓光大學刊)

⑥ 益山彌勒寺址 東塔址 및 西塔調査報告(圓光大馬韓百濟研究所 一九七四年 十二月刊)

⑦ 黃壽永·多寶塔과 新羅八角浮屠(考古美術 一二三、一二四合輯 一九七四年 十二月)

⑧ 黃壽永·金銅半跏思惟小像의 新例(考古美術 一一八號 一九七三年 六月)와 拙著「韓國佛像의 研究」

⑨ 黃壽永·百濟半跏思惟石像小考(韓國佛像의 研究)所收 一九七三年 三和 出版社刊)

⑩ 田村圓澄·半跏思惟像의 傳流와 受容(嶺南大開校 三十周年國際學術會議發 表論文 一九七七年 五月)

⑪ 廣隆寺由來記(小林剛氏論文所載) 및 續古事談(太秦廣隆寺史)所載)

⑫ 黃壽永·多寶塔과 新羅八角浮屠(考古美術 一二三、一二四合輯號 一九七 四年 十二月)

⑬ 金載元·尹武炳·感恩寺 國立博物館 一九六一年刊。

또 襄陽 陳田寺浮屠는 方形重壇위에 八角塔身이 놓여있어 羅末作 으로 추정된다.

⑭ 필자는 이 德美像의 高찰에서 垂下된 左足を 받는 蓮花紋尼座의 新舊의 蓮花紋에 대하여 간단하게 발표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이 兩種의 蓮花紋은 年代뿐 아니라 新羅作品說의 根據로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아가 필자는 이 德美像의 實年代는 新羅統一기에 들어선 七世紀後半初葉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새로운 年代觀은 奉化發見石像에 대하여서도 同一하여서 앞으로 더욱 검토하고자 한다.

黃壽永·德美金銅半跏思惟像의 左足과 蓮臺(考古美術)三卷 十一號 一九六二年 十一月)

(東國大學校博物館長)